

#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대학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자동 110-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 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 TEL: (0343)470-3155

## 법공양 페이지

어요? 그러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생각을 잘 해도 오지 않더라 이러기도 하는데 그건 마음과 마음을 맘대로 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몸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마음을 끌어야 몸통이가 오는 거지 말로 해서 한다면 그건 절대 몸통이가 오질 않죠. 오히려 자꾸 달아나는 걸요. 허허허. 이러니까 저리 핑계 대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럴 때도, 또 도둑질이나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다니거나 이래도 그걸 사해주고 들어올려주고 하면 그걸 관해줘야 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본인한테는 나쁘게 행동해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고 '몰이' 아닌데, 주인공 몰이 아닌데 너도 마음에서 잘 이끌어 가야 할 자격이 있잖아' 하고 자꾸 이렇게 관하면 그 주인공이 이끌어주게 돼 있어요.

수차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실천이 그렇게 안되나 봐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깐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조차도 이끌지 못해요. 그 왜냐? 마음이 마음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몸으로 올 때를

**그대로 먹을 뿐이고 걸을 뿐이고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입니다  
모두 공했으니 착을 두지 마세요**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습니까. 너무 많이 빠르게 돌아가고 화해서 돌아가니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법에서는 나뭇잎이라고 그러니까. 화해서 나뭇잎.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나뭇잎이라고 합니다. 화해서 나뭇잎. 건넌다 이렇게요. 그러니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랴 이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먹을 뿐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입니다. 그냥 모두가 공해버렸다. 그런데 아등바등 착을 두고 열쓰고 울고불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면은 내 몸통이 통 안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은 이 지구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끌릴 수가 없어요. 내 몸통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

하면 내 몸통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것을 거기가 돌입하고 거기가 놓고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진짜 내가 있다면 이렇게 해봐' 하고 자문자답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나오게 돼있어요. 석가세존도 자기 스스로 연등불이 되어 바로 수기를 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기 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기 자발이 연등불이기 때문이죠.

질문: 부산지원에서 올라온 청년법우입니다. 먼저 스님들과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이 자리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부처임을, 내 속에 자성이 있음을 끊임없이 일러주시는 큰스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의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세세생생 물러서지 않고 정진할 것을 발원합니다.

스님: 당신 주인공 불성대러 그래. 네가 형성시켰으면 형성시킨 내가 울지 않게 해야지' 라고 말아야.

질문: 네 알겠습니까.  
스님: 울지 않고 살게 해야잖아. 하고 말아야. 그러니까 매사 거, 요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서 걸리지 말고 다 그렇게 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실천이 옮겨지고 그것이 공부가 되고 바닷물이 되고 수공부 올라가서 평등하게 전부 먹일 수도 있는 거야.

질문: 스님, 제가 선원에 다니면서 다른 법우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니다. 인연이 닿을 듯 닿을 듯하면서도 인연이 닿지 않는 저의 부족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걸 보고서 공부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겠습니까? 인과예요? 그러니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내 스승이란 얘기죠. 천찰백공안이 다! 그러니 항상 자기는 없어요. 없는 이유를 대볼까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보는 것도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앞서 본 건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또 봐야 돼요. 듣는 것도 현재에 들었으면 또 금방 다른 거 듣고 그러면 앞에 것이 없어져요.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한 번 만나면 또 한 사람 만나야죠. 이렇게 하니 그게 어디 만났다 안 만났다. 봤다 안

바라니 그게 왜집니까? 마음이 삶에 어떻게 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끄는 거지 그건 자연스럽게 이끄는게 아니죠. 마음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와야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끌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관하십시오. 주인공은 몰이 아니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 지인 스님네 들한테 관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려면 빨리 끌어지고 또 그것도 없다고 그러다 보면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이끌어 주도록 해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되게 돼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부하기에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스님은 인연을 찾느라고 대낮에 불을 켜가지고 파고다 공원을 그냥 해매고 돌아다녔대요. 날이면 날마다 해매면, 해 뒀는데 왜 불을 켜가지고 다니겠소? 3년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물었어요. '스님은 왜 이렇게 대낮에, 항상 불을 켜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 찾느라고 그러네.' 그러대요. 그래서 또 물기를 '아, 대낮인데 꼭 불을 켜야만 사람을 찾습니까?' 하니가 '자네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네.' 그러더라는 거죠. 허허허.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구선 '아, 인제 오래간만에 찾았구만.' 이러더니 함께 가서 공부를 해서 크게 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이게 이끌어 가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되면 그건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주지원에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 참 고맙웠어요. 전국지인 청년부에서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믿고 가는 데마다 '아 이구, 이 진장에서 들 하나하나 놓느라고 정말 열 썼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느 부모든지 귀한 자식 아님이 없는데 귀한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 다니라고 길을 만들어줬으니 자기도 이렇게 길이 되어서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잘 걸어달라네니까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위 법문은 1998년 11월 1일 제8회 전국연합청년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AS1 288쪽  
값 6,000원  
역시이문

# 화해 나투고 돌아가니 자기는 없어

## 15년에서 계속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돼서 몰라' 이렇게 주지 않았지만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하고 없는 용도에 따라서 닳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닳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닳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절대 몰라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철한 마음으로 살다보면 나도 남도 건질 수 있죠.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게 관해주면 그 사람이 괜찮아질 거고요.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몰라서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 두어도 그 길을 터득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려 두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심으로 공체로서 공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체 만물만생이 다 공생이 아닙니까? 아니 작게 보시면 여러분의 몸체 속에서도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죠. 내가 봤다고 내가 혼자 볼 수 있나? 다 여기의 생명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보는 거죠. 한국에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있는데

그러니 이거는 현재의 일들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에 지금 그동안 얘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길에 몰려서지 않고 그대로 두면 딱딱 걸 수만 있다면, 정신계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육체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안 보이는 게 더 문제거든요. 악성인 세균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해결하게끔 돼있는 까닭이 바로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돌아다니게 대처하거든요. 내뺌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 광대무변하다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변경이 돼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립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간단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놓고서는 이거 안된다고 팔팔 뛰는 거예요. 끊어서 부수렴을 만들어 놓고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이 몸통이는 넉넉하게 그냥, 자기 가는 대로 가게 내버려 두고 그 주인공 하고만 하세요. 몸통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병만 나고 쓰러지게 되지 소용없어요. 이 주인공을 하나 붙들면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 하다못해 노간주 나무라든가 저런 나무에도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향나무 한 그루만 가져도 그 이파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파리 숫자대로 만약에 영혼이 한데 합쳐진다면, 그 이파리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가끔 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감정을 해야 할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큰 그릇도 하나 없고 항아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뻐 뭐 처음 여기에서 신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생각 내기를 '야, 김치는 해먹어야 될 텐데 그릇이 없잖아. 항아리도 없고,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해!' 이러곤 그냥 있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 뽑아 놓고 그런 지경에 있으면 아등바등 했을 테지만 나는 감정을 못하든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말입니다. 이소저라는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별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김장 때도 됐고 그러니까 그릇도 없을 거다. 하고는 큰 그릇 몇 개를 사고 항아리도 다섯 개나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항아리를 잘 쓰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썼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항아리를 다 가져오고 그런데 다가 또 쌀 두 가마니 싣고, 그렇게 밤중에 왔잖아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만. 허허허. (대중웃음) 있긴 있구만..." 하고 말이에요.

지금 자기 울산지원에 집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있다면 할 거고 없다면 못할 거니깐 그거 1년이 간들 어떨고 2년이 간들 어떨고 10년이 간들 어떨며 100년이 간들 어떨나 이거야. 꼭 지으라고 너한테 꼬리표 붙여놓은 게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거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이거야.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거지 자성불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허허허.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우린 항상 털털이로 살아요. 털털이요! 털털이 아세요? (대중웃음) 허허허.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도둑 들어올까봐 걱정도 없을 거고요. 왜냐? 마음에 감추는 것이 없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스님이 그렇게 감추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냇물을 불사하는데 쓰진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고는 죽었는데 그 뜰에 대한



그림 · 최주현

#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게 한마음 법 마음으로 마음을 끌어야 몸도 따라 와요

착이 붙어서 구렁이가 되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대요. 큰 구렁이니까 비늘이 있지 않겠소. 그런데 그 비늘 속에는 또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 질에 시주한 사람들이 전부 구렁이가 돼가지고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통이가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그 구렁이들이 몸에 붙어서는 한다는 말이 왔으면 대가를 내놔라 이거야. 그러고는 그냥 구렁이가 돼가지고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통이가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절도 망하고 사람도 다 떠나고 그 구렁이 하나만 남아서는 그 참 도를 통한 스님 하나만 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수년을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오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지 자락을 쥐고선 늘어진 거죠. 바지 자락을 쥐고 있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거죠. 그 스님은 아시지만 딴 사람은 모르죠. 그 구렁이가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천도 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나가 스님은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러니까, 정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알겠노라고 이렇게 서서 말을 하나하나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걸 볼 때 '저 스님 미쳤군! 아주 미쳤어. 그냥' 허허 허허이거든요. 그래도 그 스님은 그 소릴 들은 등 마는 등하고 그 구렁이를 이럴날 천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렁이가 하는 소리가 '스님 스님! 내 겹뎀기가 벗겨지잖아 그걸 좀 태워주십시오. 스

님이 태워주셔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님은 구렁이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는 그 구렁이가 말한대로 가서 감추어 놓은 데를 파보니 항아리로 그냥 몇 항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때는 열전이었죠. 그래서 그 열전을 꺼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거기다 법당을 잘 지어놓고는 딴 스님이 와서 살게 하고는 떠났대요.

이 세상에는 참 얘기할 수 없는 얘기가 많지만 그냥 소소한 얘기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거짓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산어 돌아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뻐가 눈이, 그 하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가 잘 데가 없고 해서 소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가지 사이가 이렇게 넓적하게 갈라진 데 거기서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예요. 눈이 좀 녹아야 어떻게 내려갈텐데 그러다 잠이 들었나봐요. 깜빡 졸다가 그냥 잠이 들은 채로 아마 끌려 떨어진 모양이예요. 그때 이 앞니 두 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요. (오른쪽 볼을 만지시며) 그래서 예전에 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달라졌어요. 이 때문에 무척 고상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소인이예요.

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잘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잘 못 생기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못 생기게 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 생기면 내가 이렇게 중노릇 하고 있었습니까? (대중웃음) 꼭꼭 쳐다보시며) 여기 전부 못났으니가 중노릇 하고 있지. 허허허. (대중웃음) 악사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 이 공부 못해요. 좀 등직하고 못났으니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자유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다. 내 식구가 전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더라면 내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또 저런 나무 한 그루도 없더라면 내가 그걸 보고서 공부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겠습니까? 인과예요? 그러니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내 스승이란 얘기죠. 천찰백공안이 다! 그러니 항상 자기는 없어요. 없는 이유를 대볼까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보는 것도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앞서 본 건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또 봐야 돼요. 듣는 것도 현재에 들었으면 또 금방 다른 거 듣고 그러면 앞에 것이 없어져요.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한 번 만나면 또 한 사람 만나야죠. 이렇게 하니 그게 어디 만났다 안 만났다. 봤다 안

가짜본 인연을 보듯 고갈된 현실에 허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풀이 아니다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이나 인터넷 부디파이(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